

國家的次元에서 育成·發展시켜야

進興法제정·國立研究所설치 시급

『우리나라의 航空宇宙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항공우주산업을 촉진·진흥시키기 위한 「진흥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고 이러한 행정지원 업무를 전담할 항공우주담당부서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분야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국립항공우주과학연구소」의 설치와 함께 「항공우주기술개발지원 기금」 조성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우주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先導해 온 韓國航空宇宙學會 趙玉燦회장(인하대학교 공과대학 항공공학과교수)은 항공우주과학 기술이 그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고 있는 만큼 國家的인 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시책으로 이분야를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연다.

趙회장은 항공우주산업이 발전하려면 무엇보다도 많은 자원과 우수한 기술인력, 첨단 기술 등이 뒷받침 되어야하므로 정부 주도하에 학계·연구계·산업계가 협동체제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계획하에 단계적으로 체계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실 항공우주공업은 모든 基幹産業의 총체적인 종합공업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기간산업의 발전없이 항공우주공업의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趙회장은 항공우주공업은 그 자체가 바로 종합공업이므로 이분야의 육성이 다른 기간산업을 발전을 유도하게 되어 국내 공업의 전반적인 질적향상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우리의 현 실정으로 봐서 宇宙産業분야보다는 航空産業 분야에서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로켓트 발사는 국위



◇ 趙玉燦 회장

선양 이상의 기대는 얻기 어려우므로 항공기 제작기술에 주력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趙회장은 최근 몇년동안 우리의 항공우주과학기술 수준이 괄목할 만한 발전상을 보여온게 사실이지만 우리의 능력이나 재력으로 볼때 새로운 차원에서의 개발은 어려우므로 현재 國防차원에서 개발된 것이라도 民間 차원의 과학연구용으로 전용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 실정에서 이 분야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趙회장은 그동안 우리나라도 한국형 미사일의 발사 성공, 大韓航空에서의 헬리콥터 생산과 F-5 전투기(제공기)의 생산, 三星重工業에서의 제트-엔진 생산등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에는 올라섰으므로 1990년대 중반에는 獨自의인 항공기 설계·제작능력을 갖추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관련 공업의 육성은 물론 선진국의 항공우주과학기술을 빠른

시일내에 효율적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게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국의 선진기술의 조기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급한대로 우수인력 가운데 팀을 구성하여 첨단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이와 함께 이 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연구비 지원과 産·學·研의 협동 연구체제 확립 또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말한다.

『항공산업은 노동집약산업과 지식집약산업을 겸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므로 항공산업을 수출전략산업화해서 육성·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趙회장은 항공산업은 국제적인 分業化가 돼 있으므로 어느 한 부문만을 집중 육성해도 많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데 그동안 日本에서 주로 맡아 해온 항공기 部品 생산만 해도 이제는 日本의 기술이 앞서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 주문이 몰리고 있어 앞으로 7~8년간은 日本이 그간 누린 호황을 우리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선진공업국과의 기술격차가 크므로 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항공우주기술의 배양·축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회가 중심이어서 학계및 연구계, 산업체와의 협동연구체제를 구축하여 항공우주기술 선진화에 힘써야겠으며 관계당국에서도 연구비지원, 관제법 제정등으로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올해로 학회가 창립된지 20주년이 됩니다. 우리나라 항공우주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7년에 설립된 이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 항공우주과학기술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하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큼의 뒷받침을 못하고 있으므로 2천년대를 향한 우리나라 국가발전 목표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작정입니다』 趙회장은 학회가 창립20주년이라는 成年期에 접어든 만큼 이제부터는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각종 사업을 수행해 나갈

로써 기반조성에 힘쓰는 한편 산업체와의 유대 강화에도 힘써 기술지원 등을 통해 이 분야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다짐한다.

특히 금년에는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항공우주기술을 어떻게 개발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문제를 놓고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한편 외국의 최신연구동향과 선진기술의 교류를 위해 자동제어·신소재·최신 복합재료등 국가연구 과제에 관한 국제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學會는 특히 지난해 680여 회원들의 정성어린 基金으로 강남구 방배동에 15명 규모의 독자적인 사무실을 마련했는데 이를 계기로 학회가 財政적으로 自立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우리의 실정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産學協同체제 확립과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다짐한다.

『세계의 항공분야는 1세기도 지나지 않은 기간에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놀랄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또한 반세기도 되지 않은 오늘날 우주분야에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업적들이 이룩되었습니다. 이제 2천년대를 향해 人類가 도전하는 항공우주의 목표는 20세기에 이룩된 것에 비할 바가 안될 새로운 차원의 일들을 전개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趙玉燦항공우주학회장은 人類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人間이 하늘을 날아보겠다는 꿈과 더불어 발전해온 항공우주공학은 1903년 라이트 형제에 의해 10여초 동안 40m 비행했던 것이 80년이 지난 오늘 音速의 2배 이상으로 비행하는 초음속 여객기가 나왔으며 1957년 소련에 의해 sputnik 1호 인공위성의 최초의 지구주위를 돌은지 겨우 30년이 지난 지금 有人 영구우주기지의 건설은 물론 달에 이민을 가고 2천30년경에는 火星에 가서 살겠다는 계획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도 經濟的인 면이나 國家防衛면으로 보아 항공우주과학기술 발전에 國家的인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만큼 21세기를 향한 의욕적이고 先進的인 목표를 제시하며 도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權光仁記>